

古下 宋鎮禹先生 암살 韓賢宇씨 "조국장래위해 처단" 궤변에 분노

자기합리화를 위해 시대를 카멜레온 처럼 보호색으로 위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기변론의 궤변장치를 갖고 있는것이 특기인 지도 모르겠다.

한국일보 2월22일자에 실린 정치지도자 古下 宋鎮禹先生 암살범 韓賢宇란 사람의 대답 기사를 접하면서 무척 착잡한 심정을 가눌수가 없었다.

자기 사위의 청와대 정책수석행 불발이「자기로 인하여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잃게되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古下는 민족주의자도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매국노라고 했다.

그리고 古下는 신탁통치를 지지했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처단」했다고 말하고 있다.

편집자에게

또 자기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독립은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훌륭한 독립지사를 왜 지금까지 몰라보고 있었던 말인가.

과연 그가 말한대로 古下는 민족주의자도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매국노이고 신탁통치를 지지한 찬탁자였

던가.

그렇다면 왜, 반탁자요 독립지사인 그가 46년말 대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6.25를 맞아 신탁통치를 지지한 金日成 도당의 인민군에 의하여 풀려나고 또 일본으로 밀입국 하여 지금까지 영광된 조국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있던 말인가.

「공직인사 사전검증제」사설 공감

4일자 사설 「공직인사 사전검증이 철실」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사회기강확립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기준이 되어야 할곳은 역시 언론매체라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계속 도덕성·합법성등을 중시해 고위공직자 여과에 힘써야한다고 생각하며, 정치지향적인 젊은이나, 공

홀륭한 정치지도자를 암살하고도 자기합리화를 위해 궤변하고 있는 韓씨의 태도가 가증스럽다.

과연 누가 찬탁자고 누가 반탁자이며 정치지도자들을 암살하는 행위는 타당한 것인지 다함께 생각해 봐야겠다.

【임병규·58·택시운전·서울 구로구 시흥2동】

직에 몸담을 능력있는 젊은 세대도 평소 자신및 주위를 깨끗이하여 훗날의 고위공직기용에 준비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한번 평소의 시원한 사설에 감사드린다.

【이광수·서울 적십자병원 비뇨기과 과장】